동리대상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 선정

내달 6일 동리국악당서 시상식

판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인 고창군의 '제28회 동리대상' 수상자로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가 선정됐다.

(사)동리문화사업회는 동리대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판소리 진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리대상'이 판소리 연구가에게 돌아간 것은 '제3회 동리대상'에 강한영 선생이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보형 판소리 연구가는 1960년대부터 200여 편의 논문을 왕성하게 발표하며 판소리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보형 연구가는 1935년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면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 나운영 교수에게 서양음악 작곡을 배웠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우리 전통 음악을 모국어로 하는 문화에서 자랐던 만큼,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갖고 한국국악학회, 국립국악원, 국악예술학교에 드나들며 한국 전통 음악 이론을 연구했다.

특히 우리 전통 음악 전 분야를 아우르며 평생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판소리 음악학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1971년 한국민속극연구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서낭당』의 창간호에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이래로, '판소리 팔명창 음악론', '판소리 사설의 극적상황에 따른 장단·조의 구성', '판소리 고법, 호남지방 토속 예능조사',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등 총 50여 편의 판소리 관련 글을 발표했다.

여러 글 중에서도 '판소리 경드름에 관한 연구', '판소리 권삼득 설렁제', '판소리 염계달 추천목론'과 같은 연구는 판소리 악조에 대한 첫 연구로서, 이후 '판소리와 산조에서 우조와 평조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가 세운 판소리 악조 이론은 판소리를 분석하는 큰 틀이 됐다.

1978년에 쓴 논문 '판소리 붙임새에 나타난 리듬론'은 판소리 리듬 분석에, 1982년의 '판소리 제에 관한 연구'는 판소리 유파 연구에 각각 시초가 됐다.

이보형 연구가는 판소리 음악 연구의 전 분야의 이론을 정립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은 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판소리 분야에서 그의 업적은 비단 연구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1970년대 월간 '뿌리 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의 후원으로 매주 실시되었던 판소리 감상회(총 100회까지 진행)를 주도함으로서, 판소리 완창(完唱) 이라는 새로운 공연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잡지 '뿌리 깊은 나무에 게재하였던 글은 1970년대 후반의 판소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2013년 그의 평론집 '비로소 알려진 보물'(민속원)로 출판됐다.

이 연구가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판소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20세기 전반의 SP음반을 발굴·연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에서 음악학을 강의하며 후학양성에도 매진하여 평생에 걸친 그의 판소리 관련 연구는, 판소리가 인류무형문화재로 우뚝 서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이만우)은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연창자, 고수, 판소리 연구가를 선정하여 매년 상장과 상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제28회 동리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리며 화려한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을 향기 물씬 풍기는 진안향토작가 초대전

진안출신 작가 33명의 문화예술작품 선보여

제24회 진안향토작가 초대전이 17일부터 전국체육대회와 홍삼축제가 열리는 21일까지 진안군 관광정보센터 수몰문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초대전에는 진안미술협회 작가 33명이 참여해 '고향'을 주제로 진안에서 영감을 얻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서각, 공예작품 등 다양한 미술작품이 전시됐다. 유종구 한국미술협회 진안지부장은 "향토작가 초대전이 24회를 맞은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여러 작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의 활동을 기반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 쳐보이겠다"고 약속했다.

이항로 군수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해마다 회화·조형 등 다양한 장르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전시회"라며 "홍삼축제 기간 동안 군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 방문객들에게 진안 미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값진 기회"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국제도예캠프 남원서 개최… '조선도공 한류를 꿈꾸다'

남원시 어현동 춘향테마파크에서는 제26회 남원 춘향제 기간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미국 등 13개 국가 110여명의 도예가가 참여하는 제7회 남원국제도예 캠프가 개최된다고 캠프조직위원회(위원장 김광길)가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선도공 한류를 꿈꾸다'란 주제로 열리며, 1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제도예작가 초대전을 필두로 전통 도자기 제작기법 시연 및 강의, 초청작가 15인의 워크숍, 시민과 함께하는 도예와 다도체험, 샌드아트와 도예 힐링캠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대회장을 맡은 이석보(전 남원시의회 의장)씨는 7회째를 맞는 남원국제도예캠프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간 남원의 도공들을 추모하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과 교류를 통해 남원도예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한류의 장과 남원도예의 외연을 세계로 확장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국제도예캠프는 전문 워크샵 참가자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이르고 110명에 이르는 국제작가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고의 규모로, 가을을 맞아 남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의 발판 마련 할 것"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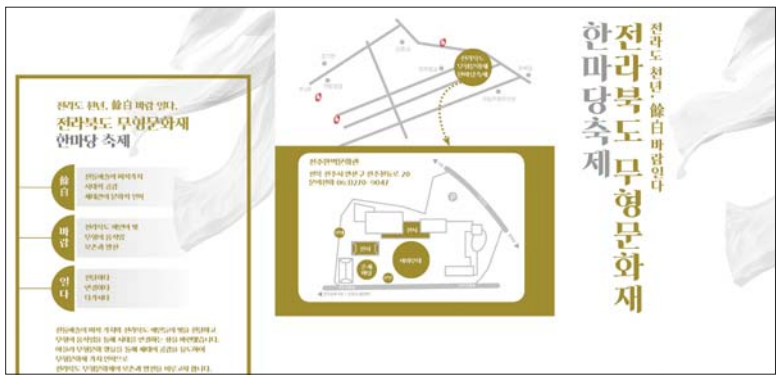
내일까지 한벽문화관서 열려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전라도 천년, 여백 바람 일다'를 주제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린다.

전북무형문화재연합회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북지역 예인들의 공연과 전시를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 무형문화재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전통예술의 미적 가치를 전북 예인들의 무형 몸짓과 소리로 전달해 시대 간 공감을 유도하고, 무형문화 향유를 통해 세대 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으로 전북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축제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16명과 단체 5개, 기능보유자 32명이 참여하며,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로 꾸며진다.

오는 18일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38호 호남넋풀이굿을 시작으로 김광숙(예기무), 지성자(가야금산조), 김명신(판소리), 강정렬(가야금산조 및 병창), 최승희(판소리), 김소영(판소리) 등의 예능 보유자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북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가 18일부터 20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이일주(판소리), 최선(호남살풀이춤), 민소완(판소리), 순창금과들소리, 전주기접놀이, 고창농악 등을 선보인다.

마지막 날에는 임실필봉농악, 김영희(시조), 이용길(판소리), 김무철(한량무), 박애숙(가야금병창), 조소녀(판소리), 문정근(전라삼현승무), 왕기석(판소리) 등의 예능 보유자가 참여해 전북 무형의 멋을 한껏 뽐낼 예정이다.

이 기간에 한벽문화관과 경업당에서는 기능보유자 32명의 무형 문화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된다.

전북무형문화재연합회 양진성 회장은 "우리 지역에 기량 높은 예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전라북도의 무형문화재를 한데 모아 선보이고 보존과 전승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발레로 보는 한국동화 '콩쥐 팥쥐 이야기'

20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서

우리나라 대표 전래동화를 발레로 만나는 '콩쥐 팥쥐 이야기' 공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에게 지혜와 용기, 상상력, 꿈을 얻을 수 있는 무대로 공연된다. 발레 동화 '콩쥐 팥쥐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인 '콩쥐 팥쥐'를 발레로 창작한 작품으로 착하고 예쁜 콩쥐가 어려움과 역경을 선한 방법으로 이겨내어 마침내 행복을 찾는 내용이다.

원작에서 전달하는 '권선징악'의 메시지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모두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지혜와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다.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더불어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작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발레 관람을 통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발레 테크닉과 마임을 통해 발레를 쉽게 이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